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한국불교 수호자는 누구인가”

### 불패(佛牌)의 기능과 의미

불패는 부처님이나 큰스님들을 주로 모시는 위패(位牌)로 경전명이나 불보살님들의 명호 큰스님들의 법명이나 발원내용들을 적어 불단에 함께 모시는 위패를 말한다. 보통 그 형태는 내용이 적힌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있는 위패를 연화대(蓮花臺)위에 놓는다. 위패의 주위를 채운(彩雲)모습이나 보주(寶珠) 등의 모습으로 조각하고 그 안에 모란 연꽃 같은 화훼나 운용(雲龍)같은 문양을 화려한 모습으로 조각해 상단에 모신다.

불패는 보통 하부 좌대와 상부의 패신으로 나뉘는데 상단의 모습은 주로 구름을 도상화한다. 그리고 앞면 중앙에 적자 각형의 액(額)을 만드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발원문이나 불명을 넣어 발원하는 경우가 많다.

### 유교 선비 난동 막기 위해 삼보와 함께 발원패 조성

동화사에도 여러 개의 불패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삼보패(三寶牌)와 발원패(發願牌)다. 삼보패는 말 그대로 삼보를 신앙하는 세 점의 불패다. 각각 그 액에 나무(南無) 진어(眞如) 불보(佛寶), 나무(南無) 심심(甚深) 법보(法寶), 나무(南無) 정정(淸淨) 승보(僧寶)라고 쓰여 있어서 삼보인 불법승을 모시는 불패임을 알 수 있다.

발원패는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와 세자저하수천세(世子低下壽千歲)라는 두 개의 불패가 있는데 모든 불패가 다 청룡과 황룡이 어우러져 있는 복잡한 문양을 보인다. 특히 발원패는 황룡과 청룡이 여의주를 쥐고 상당히 어려운 조각방식인 투각(透刻)으로 조각된 유려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다면 왜 불가 최고의 삼보(三寶)와 함께 발원패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다.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신라시대를 거쳐 세계 최고의 불교미술품들을 양산한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조선의 창건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불교의 위력으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상당히 잔혹한 핍박과 압제를 가



입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원패'

한 것이다.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되고, 여러 종파가 정부의 명령으로 합병되거나 인수되기도 하고, 승려의 숫자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사찰에 속한 직원과 토지를 자의로 수용하기도 했다. 또한 승려들에게 특산물을 생산해 바치게 하는 등 수많은 압박수단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종교사에 있어 기독교의 목사들도 이루어진 군대, 카톨릭의 수사나 신부도 이루어진 장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의 큰 전쟁에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수천, 수만 명의 승병을 이끌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청나라의 침입 때도 많은 승병들이 미리 끝까지 대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승가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교 선비들과 관리들은 수시로 사찰에 침입해 승려들을 괴롭히고 사찰에 피해를 끼치곤 했다. 그 피해와 사단(事端)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발원패다. 주상전하와 세자전하의 장수(長壽)를 비는 발원패를 대웅전 부처님 바로 앞에 놓음으로써 유교세력의 행패를 미연에 차단하려하였던 것이다. 주상전하의 발원패가 있는 곳에서 감히 관원이나 선비가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기에 발원패는 바로 사찰과 삼보(三寶)의 보디가드였던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의 수호자는 누구일까? 흔들리는 위상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데...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도심서 매달 만나는 ‘찬불가 향연’

## 풍경소리 무료 ‘붓다콘서트’... 관객과 소통의 장 마련

흔히 절집 음악회라 하면 고즈넉한 산사에서 개최되는 산사 음악회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도심 속에서도 불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정기 공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좋은벗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이하 풍경소리는 매달 전석 무료 붓다콘서트를 열어 대중들에게 찬불가를 알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꾀한다.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붓다콘서트는 2000년도 초반에 시작됐다. 부처님오신날과 연말 등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해 왔는데 늘 회수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도 도심속에서 찬불가를 함께 즐기고 따라 부르는 정기공연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7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매달 열리는 붓다 콘서트는 초청 가수 공연은 물론 다함께 노래를 ▶법문이 있는 이야기콘서트 ▶찬불가 작사 작곡자 초대 ▶작은 사찰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7월 공연에는 분당 원적사 합창단, LMB싱어즈 등의 출연이 확정된 상태다.

붓다콘서트는 대중들이 찬불가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훈훈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장은 “찬불가를 부른다는 것은 수많은 신행생활 중 하나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신행 생활이 될 것이다. 또한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콘서트가 열리면 찬불가 마니아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며 공연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래서 출연진과 관객들이 찬불가를 함께 부르는 ‘다함께 노래를’은 주목할 만한

코너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그동안 풍경소리는 찬불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아쉬웠다. 이번 공연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중들이 찬불가를 함께 부르며 부처님의 법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사찰 합창단의 공연도 주목할 만하다. 유독 작은 사찰 합창단에 풍경소리가 주목한 것은 대형 사찰에 비해 공연 회수가 적은 이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를 위해서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대형사찰 합창단이 다양한 대외적 공연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작은 사찰 합창단은 단란한 실

### 7월~12월까지 정기 공연 마련 함께 노래 따라부르는 코너 훈훈 작은 사찰 합창제도 ‘주목’

력에도 불구하고 공연 기회가 그리 많지 못했다. 이들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해 사찰 합창단의 공연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고 말한다.

음악은 그것을 듣고 따라 부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교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붓다 콘서트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실장은 “앞으로 붓다콘서트를 상설화하는 것은 물론 도서 산간 지역으로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도 계획 중이다. 찬불가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sh@ryunbul.com



“좋은벗풍경소리”는 7월부터 매달 전석 무료 붓다콘서트를 개최해 대중들에게 찬불가를 알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꾀한다. 사진은 지난 연말 ‘붓다콘서트’에 출연한 LMB싱어즈 공연 장면.

## 여름방학 맞아 풍경소리 34집 발매

### ‘우리절 꽃밭’ 등 9곡 수록

늘 푸른 소나무 솔향기 솔솔 처마 밑 풍경은 바람에 땀그람/ 법당에 가득한 은은한 향내음 엮는 스님의 묵탁소리 푹푹/ 하늘에 흰구름 두둥실 떠가고 뜨락에 다람쥐 오늘도 오가네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34집에 실린 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작곡의 ‘우리절 꽃밭’이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좋은 벗 풍경소리가 34집 앨범을 냈다. 우리절 꽃밭, 산사의 하루, 108배, 아이더워, 부처님 앞

서면, 선물 보따리, 부처님 얼굴, 손 끝에 단풍이 물들었어요, 우리 꽃이다 등 9곡이 담겼다. 풍경소리는 “1994년 1집 발매 이후



풍경소리 34집 앨범 자켓 사진

서른 네 번째 앨범을 내게 됐다. 율동 위주의 찬불가는 물론 동요 본질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곡들로 구성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 미국 간 ‘아미타불’ 한국을 찾다

### 국립중앙박물관 ‘미국, 한국미술...’展

‘아미타불·지장보살도’ 등 미국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미술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우상)은 8월 5일까지 특별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를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미국 9개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미술품 소개 전시에서는 ▶고려 후기 ‘아미타불·지장보살도’(메트로폴리탄미술관) ▶

조선 16세기 ‘석가설법도’(호놀룰루미술관) ▶조선 후기 ‘목조동자상’(호놀룰루미술관) ▶통일시라의 ‘금동불입상’(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보스턴미술관의 청자 꽃 새 무늬 대병, 브루클린박물관의 청자 연꽃 무늬 주자,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청자 앵무 무늬 정병, 청자 모란 넝쿨 무늬 사각형 반 등 다양한 한국 미술품도 만나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이 전시는 미국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아미타불·지장보살도’

과 미국의 박물관이 한국미술을 소장하게 된 오랜 역사를 살펴보고 미국에서 한국미술품의 중요성을 조명해 보고자 기획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미국 내 총 30개의 한국미술 또는 한국 코너 중에서 대표적인 9개 주요 박물관의 한국미술품 86건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에서 ‘한국미술을

소장하다’는 미국 박물관 한국미술 소장의 역사를 조명했다. ‘한국미술을 전시하다’는 미국 주요 박물관의 한국미술품을 한국미술 설치년도에 따라 박물관 별로 작품을 전시했다. ‘한국미술을 빛내다’는 미국 박물관 한국미술 전경과 주요 한국미술 관련 특별전을 조명, 관련 도록과 교육자료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호놀룰루미술관, 브루클린박물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보스턴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클리블랜드미술관, 하버드 세클러 미술관 등이 참여했다. (02)2077-9483 정혜숙 기자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 황금 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칠 마감,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확대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부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정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